

‘의대 증원 반대’ 광주·전남 의사 600여명 서울로

전국 의사총궐기대회 참석...전대·조대병원 전공의 등 참여 25인승 버스 20대·개별 이동 등...“의료 살리기 위한 투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전국 의사총궐기대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개인의, 전공의 등 600여명이 상경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요리를 살릴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일 광주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사는 오후 2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묵념, 대화사, 구호 제창, 연대사,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점 설명,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화사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

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 눈 속 이고 있다”며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앞서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월드점점 실의 주차장에는 상경을 위해 광주시의사회 회원을 비롯한 전남대·조선대병원 사직 전공의 등 500여명의 의사들이 집결했다.

실의 주차장에는 25인승 버스 20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는 광주·전남 의사가 600여 명이 넘는다고”며 “준비없는 의대 정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총궐기대회에서 광주시의사회 회원 등이 의료 탄압 중단과 9·4의정항의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총궐기대회 참석차 상경을 위해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월드점점 실의 주차장에 광주시의사회 회원 등이 모여 기다리고 있는 모습.



증원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분명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우리는 의사 살리기가 아니라 ‘의료 살리기’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며 “또한 의대 정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60%가 넘는 인원을 급격하게 증원하려 하니 반대하는 것이

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부의 발표대로 의대 정원이 3천여명 이상 늘어난다면 2040년에는 건강보험료가 1인당 약 8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은 국민들에게 숨긴 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애꿎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도 “의대 정

원이 확대되면 정작 머리 좋고 실력 있는 의사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필수 중증의료 또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지난달 20일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집

단사직한 이후 2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과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최종 파악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나 고발 등 사법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찰은 전국 의사총궐기대회가 열린 이날 의협 현장 간부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장은정기자

의대 증원...조선대 ‘확대 요청’·전남대 ‘논의 중’

교육부 “4일까지 미신청편 추가 없어” 강경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방침에 따라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각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의대 정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신청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제출한 정원 신청 수에 따라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에서는 이번 정원 신청 기회를 활용해 2배 이상 늘리는 신청서 제출을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0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소재 의대는 동아대(49명)·대구가톨릭대(40명)·강원대(49명)·건양대(49명)·울지대(40명)·충북대(49명)·울산대(40명)·제주대(40명) 등 12곳으로 이들 대학이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 소재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현재 의대 정원은 각각 125명씩이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수진, 강의실 등 교육 인프라와 학생 수용 능력을 감안해 정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이날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일로 정한 4일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예기자

5·18부상자회 신규 임원 선출 무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의 신규 임원 선출이 과반수 미달로 무산됐다.

3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신규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 총 13명에 대한 임원 선거를 하려 했으나 ‘유권자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선거 유권자는 부상자회 중앙총회 구성원 166명 중 징계 대상자 10명을 제외한 156명으로 이 중 과반인 78명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이 있지만, 이날 55명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부상자회는 현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월 전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투표 날을 다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투표처럼 특정 회원들이 ‘반발성’ 움직임을 또다시 보일 수 있어 계획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부상자회 단체 SNS 채팅방에는 투표 당일 전북 완주 일대로 워크숍을 떠나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 대부분이 특정인의 허수아인 탓에 부상자회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함께 논의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부상자회 관계자는 “현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 선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3년간 9차례 고의 교통사고’ 버스기사 ‘무죄’

법원 “지병 등 영향 판단...공소사실 증명 없어”

‘3년간 9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 시내 버스운전기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천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3년 동안 9차례의 사고를 내긴 했지만,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다른 버스 기사들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정거를 자제하도록 교육 받은 점과 9건 사고 대부분 갑자기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의 과실 등에 A씨가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기자

3·1절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 현직 경찰관 입건

3·1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달미를 잡혔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

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달미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성학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